

## 2022 임인년 태사묘 추향제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권정창)가 주관하는 2022 임인년(壬寅年) 태사묘(太師廟) 추향제(秋享祭)가 추석(秋夕) 다음날인 9월 11일(음력 8월 16일 中丁日)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태사길13(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휘동 전 안동시장 겸 안동김씨화수회장, 권철환 안동권씨안동종친회장, 김동량 안동시노인회장, 권기갑 서울 성균관 임원,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예년 같으면 추향제 때 전국에서 참제원이 100여 명 이상 참석하였으나 3년 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참석인원이 줄어든 데다 추석 연휴까지 겹쳐 참석인원이 적었다.

참제원 분정(分定)은 숭보당(崇報堂) 마루에서 권태은씨(權泰殷. 좌윤공파)가 담당하여 현관(獻官), 제관(祭官), 참제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에 걸쳐서 집사분정(執事分定)을 마쳤다. 집사분정은 초현관 김숙동(金淑東·안동향교 전교), 애현관 권오정(權五正), 종현관 장인백(張仁伯), 삼성(三姓)의 축관(祝官) 김무진(金武鎮), 권택호(權宅鎬), 장부진(張富鎬), 찬자(贊者) 김준기(金俊基)가 업무를 각각 맡아 1시간에 걸쳐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특히 김준기 찬자의 흘기(笏記)에 따라 참제원들은 질서 정연하게 추향제를 치루었다. 이날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늦어워가 닥쳐 더위를 느낄 정도로 무척 더웠다.

현관, 축관, 참제원 모두는 관복(冠服)과 도포(道袍)로 갈아입고 향사(享祀)를 봉행하였으며 봉행이 끝나자 숭보당 앞 잔디밭에서 현관, 힌

관과 축관, 단체, 성씨별로 나눠 기념촬영을 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숭보당에서 음복례를 한 후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회를 맡은 김두선 사무국장의 진행에 따라 초현관을 맡았던 김숙동 도유사는 인사를 통해 “추석이 있고 바쁘신 가운데 추향제에 참여하여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초현관을 맡은 것은 분에 넘치지만 안동향교 전교를 하다 보니 초현관을 맡게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도유사는 “몇 년 전부터 거론했던 병산대첩(瓶山大捷) 기념공원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또 태사묘의 향사를 삼성(三姓)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시민여론도 있으니 성씨를 초월한 시민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정창 태사묘관리위원장은 “오늘 추향제에 참석하여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한 후 “도유사가 지적한 태사묘 춘·추향사 때 시민참여 문제는 안동시와 협의해서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갑 서울 성균관 임원은 “태사묘 춘·추향사를 세 성씨만 하는 것은 격이 낮은 것”이며 “시민참여를 적극 독려해서 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사묘에서도 유명한 인사가 방문하면 방명록에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동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태사묘 추향제에 멀리 경기도 이천과 포항 등 원근 각지에서 참석하였고 또 향사발전에 도움말을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며 “앞으로 시장과 협의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주최 측은 코로나 여파로 다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참석자 전원에게 1인당 15,000원의 식사비를 지금 한다”고 밝혔다.

보도부장 권영건

## 2022 재안파종회장친목회 9월 월례회 개최



재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기호) 열여섯 번째 회의가 추분(秋分) 날인 9월 23일 저녁 6시 안동시 은행나무길(육동) '우덕식육식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권계동 전 재안파종회장 친목회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권기호 현 회장, 권숙동 전 안동종친회장 겸 대종회 수석부회장, 권영건 전 부회장과 종친회장, 권세복 북야 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오춘 부

정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중공파종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파종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기원 과종회장친목회 사무국장, 이귀화 안동종친회 서무과장이 참석하였다. 특히 권철환 신임 안동종친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는 등 모두 14명이 참석하였다. 회원인 권인탁 과종회장협의회 고문, 권순협 전 별장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등 3명은 유고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기호 친목회장은 인사말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은 추분날에 회의를 갖기 위해 되었으며 지긋지긋하던 코로나도 다소 잠잠해 가는 이때 회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무척 반갑다”고 말했다.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고 말하고 “앞으로 안동종친회 3층 사무실을 1층으로 옮길 계획이며 또 종친회 회칙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오의 안동사무국장은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 경북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안동권씨유곡종종(西谷宗中) 닭실마을 종택(宗宅)에서 ‘충재 권별선생입향500주년기념식’을 개최하니 많이 참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권철환 회장이 송이버섯을 가져와서 불고기에 섞어 먹으니 맛이 별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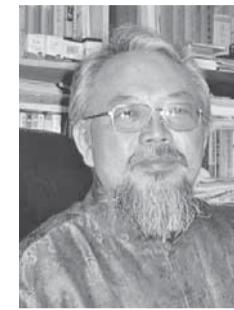
격월로 두 달 만에 만난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답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니 헤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신임 안동종친회장은 회원들에게 ‘재래 김’ 한 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두 달마다 한 번씩 모이는 친목회는 흔수 달 마지막 금요일로 다음 월례회는 11월 25일 금요일 저녁에 모인다.

보도부장 권영건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27)



최근 윤대통령 부부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1926~2022, 재위: 1952~2022)의 서거에 조문(弔問)과 UN 총회 연설, 미국 제46대 조지프 R.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1942~, 취임: 2021.1.20~)

대통령과 일본 100·101대 내각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1957~, 취임: 2021.10.4~)와의 회담 및 캐나다 방문 등 9월 18~24일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을 떠나 아직 22일 현재 외국에 아직 체류 중인데, 앞서 6월 말에 나토(NATO) 초청 스페인(에스파냐) 방문의 첫 해외 외교나들이와 최근 해외순방 성과에 대한 포폄(貶譽)의 평가는 국내·외에서 매우 다양하게 수많은 최근 뉴스와 시사정치 평론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식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흐름이 세계를 훔쓸고 지나가고 다극화나지 다양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듯한 세계정세와 우리를 둘러싼 내외의 현실은 여전히 급박하고도 어렵다. 안으로는 정치권이 개혁을 위한 구체적 비전이 실증된 가운데 경제적 공황이란 위기가 닥쳐올 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그림자가 온 나라에 드리워져 있다. 나라의 안·밖으로 러·우 전쟁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른바 ‘전세타격’ 발언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법제화, 중국의 타이완 공격예상 작전 등등으로 전쟁의 불안이 감돈다. 지난 19세기 말에서 21세기 초 현재까지 약 150여 년 간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의 입김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국제관계에서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 ‘영원한 우방(友邦)도 영원한 적국(敵國)도 없다.’는 것이 진리이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자. 일본 놈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세!’ 인용구의 내용은 1945년 8.15. 광복(해방)을 맞아 기쁨의 환호 속에서도 당시 불안한 세계정세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얘기였다고 한다. 우방인 미국을 믿어서도 안 되고, 적국인 소련에 속아서도 안 된다는 당시 해방(광복) 한국 국민(民衆)의 우려 속에는 일본이 다시 일어서서 한반도를 침략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예지(預知)적 요소도 있다. 특히 한국은 정치안보나 경제물류의 지리적 건接连에서 동북아의 중심축인 허브(hub) 국가로 군형자와 조정자를 할 수 있는 국가이면서도 강대국에 인접해 있는 관계에서 야기되는 침략과 수난의 유구한 한국의 역사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앞서 거론한 세계 속에서 국가 간 외교안보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적군도 없다’는 등의 담론(談論)은

19세기 영국 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헨리 존 템플(Henry John Temple, 1874~1865)은 거의 60년 가까이 관직에 있었다. ‘3rd Viscount Palmerston’(자작子爵 팔머스톤 3세)으로 불렸던 그가 역사가들한테 외교수장의 최고봉으로 뽑히는 이유는 대영제국의 한창 중요한 시기(1830~1865)에 위기를 잘 관리하고 대외 관계를 훌륭하게 이끌어갔기 때문이다. 그가 주장한 보다 정확한 원문과 해석은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우리의 이익이 영원해야 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구절이다.

한국은 10년 전인 2012.12.19.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1952년생)가 당선되었고 2013년 2.25. 취임식을 갖게 되었다. 중국은 2012.11.15. 제18기 1중 전회에서 시진핑(習近平, 1953년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직에 임명되었고, 2013.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을 승계 받아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게 되었다.

2012.12.11. 일본의 총선으로 보수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극우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1954년생)가 일본 총리대신이 되었다. 아베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제도 영토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내각 관방 산하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키로 하였다.

일본 또한 2011년 3.9. 11:45~11.14:46 동북부 대지진(최대진도 9.1)과 인접 국가와의 국경분쟁(한국·중국·러시아) 및 보수 우익의 이른바 ‘1945년 종전終戰(敗전敗戦)’ 이전의 일왕(天皇)제 부활과 현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안간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일본국 현법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전쟁의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흐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태공군 그 밖의 전력을, 이를 보지하지 않는다. 국기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이 뉴욕의 9.11 테러 배후로 알카에다를 응징하다는 명분으로 아프카니스탄 침공에서 20년 간의 전쟁(2001.10.7~2021.8.30)을 종식선언하며 철수하였다. 중국은 티베트 서장장족(西藏族) 자치구와 신장위구르(新疆維吾爾) 자치구의 소요나 국경 분쟁, 미국과의 무역과 타이완에 대한 침공연습과 미국의 간섭 등 내외적 갈등으로 분주하다.

공자는 계강자(季康子)가 정치에 대해 물자, 공자가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니, 그대가 바름으로써 출선수범한다며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논어”〈안연〉)

(다음호에 계속)

##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 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문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